군산항 경쟁력 강화 사업 다각화

군산항 포트세일즈, 화물유치 지원사업·정책포럼·홍보투어 추진

2024년 군산시가 군산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외 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산새만금신항 개항에 발맞추어 군산항과 신항의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먼저 군산시는 지자체, 항만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포트세일즈단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군산항 포트세일즈 사업에 나선다. 군산항 포트 세일즈단은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및 군산항 유관기관과 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올해부터는 도내 수출입기업 중 군산항 미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군산항 적극 홍보를 통해 군산항 이용률을 제고하고 화물별 맞춤형 마케팅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군산항 이용자의 만족도 및 물동량이 상승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주와 선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전략화물(컨테이너, 자동차, 우드펠릿)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다.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주와 선사의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화물 처리를 돕기 위한, 화물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군산항을 통한 화물 유치를 증대시키고, 군산항 이용의 편의성과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투어도 진행된다.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항만 현황을 청취하고, 항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군산시는 투어를 통해 그간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 체감도가 부족했던 항만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군산 발전 기여도를 적극 알릴 생각이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신항의 개장과 발맞추어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 역할 분석과 특성화 방안 등 군산항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정책포럼 2회 개최 등을 통해 군산항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기후변화 대비, 영농폐자재 집중수거 사업 추진

군산시농기센터-생활개선연합회, 영농폐자재 집중수거 오늘까지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가 3일부터 4일까지 마을이나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 집중수거에 나선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농약 용기를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 일정에 따라 수거해, 보상금을 제공한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지킴이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19년째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농 농가에게 있어서는 쓰레기 처리, 부수입 발생, 환경보호까지 가능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이번에 수거하는 품목은 농약 빈 병, 비료 포대, 시설하우스나 토양 멀칭에 사용된 비닐,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된 폐기물은 전량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하여 자원화될 예정이며, 국내외 재활용 업체로 공급된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50여 톤을 수거하였다.

또한 지난해 영농폐자재를 수거하여 자원화한 수익금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와 읍면동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12회에 걸쳐 755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지역사랑 나눔 기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라영심 회장은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산시 관내 농업인들과 생활개선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0% 지원

익산시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총 2억 1,735만 원을 투입해 6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지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2025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올해 말까지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돼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로 환경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스열펌프(GHP) 엔진 형식에 따라 부착 비용이 다르며, 1대당 246~332만 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년 이상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소유한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코레일 전북본부로부터 철도발전 대외 유공자 감사패를 받았다.

'익산시, 철도 관광 중심지'

정헌율 시장, KTX 개통 20주년 기념감사패 수상

정헌율 익산시장이 코레일 전북본부로부터 철도발전 대외 유공자 감사패를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철도 인프라 확대, 교통 환경 개선, 철도 관광 활성화 등 철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헌율 시장은 2019년 익산역 이용객 주차 요금 지원을 시작으로 열차 정기승차권 구입액의 50%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등 지역 인구유출 방지와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올해는 호남 최대 철도교통 중심도시 위상에 걸맞게 익산역 광장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 전북권여행센터와 협업해 KTX열차와 K-리그 경기, 익산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객 맞춤 시티투어 상품 '달마(달려라 마룡) 응원단 투어'를 출시했다.

지난 30일 운영을 시작한 '달마 응원단 투어'에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KTX 익산역의 이점을 활용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미륵사지 탐방을 통해 백제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익산역 앞 빛들로 일원에서 식사도 즐기며 익산 3락(樂)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시티투어는 원정 응원단과 축구팬들에게 교통 편의와 익산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익산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향후에도 KTX 연계를 통해 달마 응원단 투어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축제 활성화와 관광객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코레일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21일 개최되는 '익산 문화유산 야행(夜行)' 기간 중 '백제 달밤 투어' 1박 2일, 당일 열차 운행과 5월 서동축제를 위한 임시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4월의 다이로움 밥차 어양공원서 운영

익산시는 다이로움 밥차가 동부권 취약 계층을 위해 3일 어양공원 일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이웃들의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운영 중인 익산시 다이로움 밥차는 이날 '부성테크'와 함께하는 다이로움 이동밥차'로 진행됐다.

부성테크는 후원금 기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도우리 봉사단원들은 직접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조리하고 현장 배식을 진행했다.

이날 동부권 이동밥차는 우천으로 문화공연은 운영할 수 없었지만,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행복한 한 끼를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4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군산시는 시청 면담실에서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취득·폐지·변경 관련 등 총 5건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시는 2024년 1월 1일 변호사, 공인세무사, 시의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부시장을 포함한 시청 당연직 공무원 등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총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공인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인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신영동 18-1번지 군산공설시장과 해망동 수산물가공거점단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편입되는 해망동 999-10 일원 부지 공유재산 취득 △산북동 2568-1번지 등의 용도폐지 등에 관해 심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익산시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북부시장, 익산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6~12일(10일 제외), 13~19일 두 차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해 실시하며 전통시장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북부시장, 익산장 내 18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주일 단위로(6~12일, 13~19일) 구매금액에 따라 1인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았어도 13~19일 내 추가 구매하면 다시 환급받아 행사 기간 내 최대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